

배포 일시	2022. 10. 17.(월)		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 노준기 (044-201-3860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흥 (044-201-3858)
		담당자	사무관 장문석 (044-201-3856)
보도일시	2022년 10월 1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·민간검사소 집중단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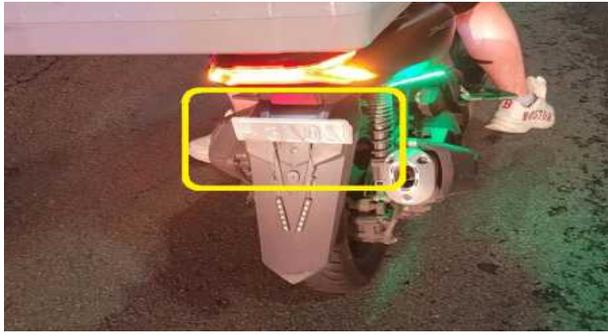
- 불법자동차·민간검사소 집중 점검·침수차·불량 변호판 실태조사도 병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, 침수차 및 불법·불량 변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① 불법자동차 집중단속(10.24.~11.23.)

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, 17개 시·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.

-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, 등록번호판 위·변조, 검사미필,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,
-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 번호판 고의 훼손·가림 여부, 불법개조(LED, 소음기 등) 미 사용 신고, 신호·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.



〈이륜자동차-꺾기번호판〉



〈이륜자동차-번호판 부착위치 임의변경〉

-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(7.4%)하였으며,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(81.7%)되었다.

※ (주요 단속결과) ▲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(111천건) ▲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(59천건) ▲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(22천건) ▲무단방치 자동차 단속(52천건) ▲무등록 자동차(6천건) ▲불법명의자동차(6.7천건) 등

②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(11.7.~11.25.)

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전국 1,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* (이하 ‘민간검사소’)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* 지정정비사업자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(총 1,845여 곳)

-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,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.
-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,
- 특히,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.

□ 앞서,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·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 곳을 점검하여 25곳을 적발하여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.

※ (주요 위반사항) ▲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(44%), ▲검사 장면·결과 기록 미흡 9건(36%), ▲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(12%), ▲시설·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2건(8%) 등

③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(11.14.~12.16.)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(힌남노)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 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 「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」 일환으로, 보험 개발원의 전손·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, 성능상태점검,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.

○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침수이력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등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④ 그 외 불법·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(11.21.~12.30.)

□ '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,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.

-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, 시판 초기 이후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.
- 아울러, 일부 자동차 경우,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,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(www.ecar.go.kr)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